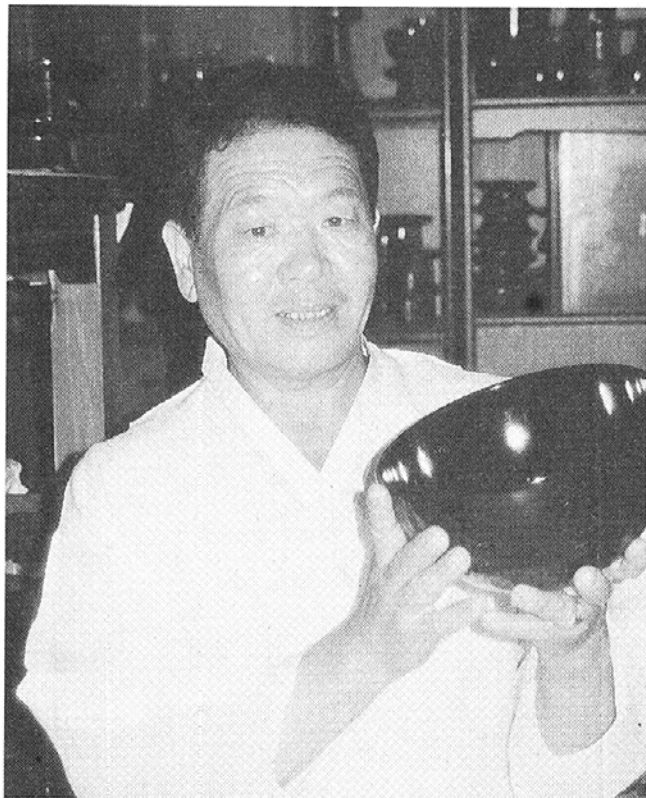


“나무도 사람도 다 쓰임새 달라”

산문박의 示單

木器 명인 김을생 씨



나무란게 잘라놓으면 죽어있는듯 보이지만 손으로 다듬다 보면 영락없이 살아있는 물건이야. 바루도 깎고 제기(祭器)도 깎고 그릇도 만들고 하다 보면 저절로 나무랑 대화를 나누게 돼. 다른 재료와 달리 나무로 만든 것은 질감이 좋고, 보면 볼수록, 손때가 타면 달수록 실증이 안나고 도리어 정이 붙지.

4대째 목공예 가업

남원 이곳을 원래 목기로 유명한 곳이야. 플라스틱이 나오기 전까지야 목기가 널리 쓰였고, 이곳 지리산 근처는 나무가 풍부하니까 자연 나무그릇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지. 그래서 전문적으로 목기만드는 기술중학교가 이곳에 있었어. 내가 1회 졸업생이라고. 우리 집안이 선비집안이었는데 증조부때 이곳에 터를 잡아 살았지. 할아버지 때부터 목기 만드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어. 아

들 미리 알고 나무를 잘라야 하는 거지. 병 만들 나무로 바루 만들면 안되지. 용도별로 선별해야 하는데, 이것은 경험에 의해 쌓여지는 거지. 나무 고르다 보면 사람 쓰임새도 마찬가지로 달라. 적재 적소에 다 쓰임새가 다르거든.

나무를 고른 다음엔 모양을 만드는 초감이에 들어가지. 나무란게 그냥 말리면 죽어도 안말라. 형태를 만들어 놓고 말려야 잘 마르지. 6개월에서 1년동안 말려야 돼. 그래서 터질 것 다 터지고 난 후 재갈이에 들어가지. 그런 후에 일일이 흠을 잡아내는 곡서과정을 통해 분살처럼 만든다음 칠을 하는 거야. 칠하고 말리고 하는 과정도 7~8번 되풀이 해야 하지. 목기 하나 만드는데만 한 8개월 넘게 걸려. 그런데도 다 만들고 나면 만족이 없지. 사실 목기는 잘하려면 끝이 없어. 대충 칠하거나 꼼꼼하게 하거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

고 대금도 불고 했지. 그때 싸잡어 지고 다녔던 보자기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온 아들녀석(연수, 25)이 가업 이으려고 작년부터 목기 배우고 있어. 기술 익히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하기 때문에 명심보감 떼었고 지금 소학을 직접 가르치고 있지. 돈 많이 버는 것은 집안 망하는 이르지. 마음 가운데 결림이 없어 자축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해.

내 그래서 자기 전시장 입구에 비석으로 유혼을 미리 새겨놔. 이런 내용이야.

“목기의 본 고장에서 목공예를 전승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분야에서 정성을 다하여 사는 것도 즐거운 일거늘 이후 사람들은 가업이 길이 빛나도록 살고 닦고 할지이다.”

내가 올해 환갑인데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가까운 곳에 토굴을 하나 마련했어. 인생은 전부가 다 중요한 시기지만 말년을 특히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지리산이 마주 보이는 곳인데, 마음 개치는 공부나 열심히 하며 말년을 보내고 싶어.

공양'이야말로 정말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바루야말로 목기중의 목기야. 바루만 들 때는 그 어느 것보다 신경이 많이 쓰여. 옛부터 '일발삼의(一鉢三衣)'라 했잖아. 스님들 전제산이 바루와 가사인데 바루야말로 조식으로 대하니 숙인들의 '자식' 같은 거지. 나무가 덜 말라 바루가 흑시라도 비틀어 진다거나 칠이라도 벗겨지면 그걸 보는 스님들에게 망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망상이란 공부의 해방꾼이잖아. 그러니 바루 만드는 사람은, 망상이 안들게 철저히 만들 것은 물론 이 바루에다 공양할 때마다 시은(施恩)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

전시장 입구에 유혼

바루를 한집씩 등에 지고 길도 재대로 나지 않은 산길을 오르내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아마 질 수백군데는 다녔을 걸. 그렇게 다니며 공부 잘 하시는 스님들을 많이 만나 빈 것도 다 큰 복이라 느껴. 선방에 가면 방선시간 전에는 스님을 만나볼 수 없잖아. 그런 때는 방선시간 기다리며 냇가에 앉아 시조창도

하고 대금도 불고 했지. 그때 싸잡어 지고 다녔던 보자기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온 아들녀석(연수, 25)이 가업 이으려고 작년부터 목기 배우고 있어. 기술 익히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하기 때문에 명심보감 떼었고 지금 소학을 직접 가르치고 있지. 돈 많이 버는 것은 집안 망하는 이르지. 마음 가운데 결림이 없어 자축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해.

내 그래서 자기 전시장 입구에 비석으로 유혼을 미리 새겨놔. 이런 내용이야.

“목기의 본 고장에서 목공예를 전승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분야에서 정성을 다하여 사는 것도 즐거운 일거늘 이후 사람들은 가업이 길이 빛나도록 살고 닦고 할지이다.”

내가 올해 환갑인데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가까운 곳에 토굴을 하나 마련했어. 인생은 전부가 다 중요한 시기지만 말년을 특히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지리산이 마주 보이는 곳인데, 마음 개치는 공부나 열심히 하며 말년을 보내고 싶어.

남원=이경숙 기자



희망의 바다가 썩고 있다니...

바다 바다 푸른 바다. 멀리 등대가 보이는 바다. 바다에서 등대를 바라볼 때 희망이 보인다. 귀항하는 안도의 희망이다. 거센 파랑, 풍파, 폭풍에 휩쓸려 난항항진을 하다가 이제 고향 항구바다로 들어오는 기쁨을 무엇으로 비기랴. 그러나 고향바다는 적조, 녹조로 변질되어 갯배새가 서지고 구토증 차올라오는 이 썩은 냄새는 어디서 오는가. 옛 바다의 갯비린내는 살 냄새처럼 목숨이 살아나듯 활개 솟구치던 냄새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핵실험 하느라고 9월5일 무드로아에서 지하해중을 못살게 하였고, 그것이 부족하여 다시 관가부파에서 10월2일 바다밑을 수서 놓고 있다.

물어보자. 실험이란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실험은 가능한 것이지만 실험 그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전멸의 재앙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무엇에 필요 한 실험인 한치 앞 못보는 '탐욕' 오염 주범

사람은 영민하다고 하지만 과학적 방법에 한해서는 자가 당착적인 행위를 자아내는 우행이 아닌가.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목전에 두고도 감행하는 것은 인간적 도덕은 별책 사라졌고 세계멸망 지구전멸의 이수라군이 된 것이 프랑스의 지성인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인간지각의 부족으로 어마어마한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소리도 알바다에 좌초한 시 프린스호의 기름유출사고는 가공할 일이다.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어 청정해역이 오염되면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양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이다. 한쪽은 청정해양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방제와 예방을

강구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해양오염을 식은 죽 먹듯이 심심찮게 저지르고 있으니 이해가 난감하다.

거제도 인근 해양인 형제도 주변에 유일호가 74m 깊은 바다속으로 침몰하였다. 무량한 기름을 적재한 상태에서 침몰되었기에 더욱 비극이다.

는 것이다.

끓는 잿물이란 무엇인가. 유화성 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화성 세제는 모두가 기름으로 만들어 지는 화학제품이다. 이러한 유화성 화학제품인 잿물이 바다속에 버려진다면 광음천의 궁전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파괴분쇄된다고 한다. 이 말은 바로 시 프린스호에서 쏟아 부은 기름, 유일호에서 오염시키는 기름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육지의 강으로부터 공장폐수, 가정용 하수, 유락시설의 오수가 수치를 헤아릴 수 없는 부영양물로 변이되어 바다로 바다로 내려가지 않는가. 이러한 바다오염의 주범이 녹조, 적조의 현상을 발생하여 바다가 썩어가는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바다가 썩어가는 바다가 죽고, 바다가 죽으면 바다의 보고가 메달라 버린다.

인간이 이 지경으로 가는 것은 무지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46

사해(死海)

“남 본다고 잘하고 안본다고 대충하면 헛일이야” “돈욕심 내면 일 그르쳐”...기술보다 ‘사람되라’ 강조

버지(김원달씨)로부터 나 그리고 아들 녀석이 뒤를 잇는다고 하니 4대째 목기와 더불어 살고 있는거야.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뿌듯해. 목공예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대로 이어가는 것도 나라 발전이라고 봐. 특히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공예기술이야. 그게 어디 잠깐잠깐 봐서 되는가. 같이 살아 부대끼며 조석으로 보고 배워야지. 그래서 가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잘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중학교 마치고 나니까 목기가 사양길에 들었어. 플라스틱 그릇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날개 돌친듯 팔리니까 누가 나무그릇을 쳐다나 보나. 목기 만들던 이웃들이 많이 떠나더군. 돈 생각했으면 이 일 지금까지 못했을 거야. 애들 가르칠만큼 벌고 이 일이 좋아서 하다보니 30년이 흐른거지.

이 그릇들 좀 봐. 모양이 단순하게 보어도 보통 손이 많이 가는게 아니야. 나무 고를 때부터 대충 골라 되는 게 아니거든. 나무와 대화를 해 봐야 돼.

이것이 어디에 쓸 건가, 바루를 만들 건가 제기 만들 건가, 료병을 만들 건가

그러나 잘 하려면 한이 없지만 속일려고 하면 또 한이 없는게 목기야. 그런데 난 대충대충은 못해. 또 '김을생 제 품' 하면 보지 않고도 사가는 이유도 바로 열과 성을 다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목기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르는 얘기가 있어. 남이 본다고 잘하고 남이 안 본다고 대충대충 하고 그러지 말고, 양심따라 본성따라 하라고 말야. 30년간 해보니 자기 명성이나 복(福)은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게 아니더라고. 남이 본 돈 안보든 꾸준히 하다보면 다 지은대로 받게 되는 거야.

올해 목기부문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어. 열심히 외길을 걸었다고 인정해 준 것 같아 무척 기뻐.

이 바루 좀 봐. 윤이 자르르 흐르지. 목기란 것이 윤칠에 따라 생명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데, 윤칠 잘된 목기는 해가 갈수록 윤이 나고 빛이 나지. 자연산 윤은 침투력이 강해 목기속으로 파고 들어가 평생을 벗겨지지 않고 썩지 않고 불에 잘 타지도 않아. 또 살균력이 있어.

스님들이 바루에다 공양을 하시잖아. 바루 자체가 살균작용이 있으니 '바루

공양'이야말로 정말 좋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바루야말로 목기중의 목기야. 바루만 들 때는 그 어느 것보다 신경이 많이 쓰여. 옛부터 '일발삼의(一鉢三衣)'라 했잖아. 스님들 전제산이 바루와 가사인데 바루야말로 조식으로 대하니 숙인들의 '자식' 같은 거지. 나무가 덜 말라 바루가 흑시라도 비틀어 진다거나 칠이라도 벗겨지면 그걸 보는 스님들에게 망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 망상이란 공부의 해방꾼이잖아. 그러니 바루 만드는 사람은, 망상이 안들게 철저히 만들 것은 물론 이 바루에다 공양할 때마다 시은(施恩)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해.

전시장 입구에 유혼

바루를 한집씩 등에 지고 길도 재대로 나지 않은 산길을 오르내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아마 질 수백군데는 다녔을 걸. 그렇게 다니며 공부 잘 하시는 스님들을 많이 만나 빈 것도 다 큰 복이라 느껴. 선방에 가면 방선시간 전에는 스님을 만나볼 수 없잖아. 그런 때는 방선시간 기다리며 냇가에 앉아 시조창도

고 대금도 불고 했지. 그때 싸잡어 지고 다녔던 보자기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온 아들녀석(연수, 25)이 가업 이으려고 작년부터 목기 배우고 있어. 기술 익히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하기 때문에 명심보감 떼었고 지금 소학을 직접 가르치고 있지. 돈 많이 버는 것은 집안 망하는 이르지. 마음 가운데 결림이 없어 자축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해.

내 그래서 자기 전시장 입구에 비석으로 유혼을 미리 새겨놔. 이런 내용이야.

“목기의 본 고장에서 목공예를 전승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분야에서 정성을 다하여 사는 것도 즐거운 일거늘 이후 사람들은 가업이 길이 빛나도록 살고 닦고 할지이다.”

내가 올해 환갑인데 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가까운 곳에 토굴을 하나 마련했어. 인생은 전부가 다 중요한 시기지만 말년을 특히 잘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지리산이 마주 보이는 곳인데, 마음 개치는 공부나 열심히 하며 말년을 보내고 싶어.

남원=이경숙 기자

알려드립니다

금번 桐華寺 金堂禪院에 乙亥年 冬安居 入榜願書를 제출하신 스님들께서는 95년 10월 22일(양력)까지 金堂禪院에 도착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추가 榜付는 10월 10일 이후에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佛紀 2539년 9월 25일

大韓佛敎 曹溪宗 第九教區本寺 桐華寺住持 無空 合掌

어=른=과=어=린=이=가=함=께=보=는=책

깨끗한 마음 지혜로운 생활

어린이를 닮은 큰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추천도서

이 책을 통하여 '효'를 강조한 큰스님의 참뜻을 알 수 있다

부처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마음 깨끗이 하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라. -석주 스님 말씀중에서-

민족불교의 선각자, 한국불교의 산 증인 강석주 큰스님의 투명한 이야기

석주 스님은 지극히 꾸밈없고 소박한 생활로 우리에게 친근한 할아버지가 되어 잊기 쉬운 '효사상'을 일깨웠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오계'를 지키게 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에서 '스님 할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큰스님, 늘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를 닮아 사는 스님이다.

조철규 지음 / 신국판 / 각권 204쪽(전 2권) 값 4,500원(1세트 9,000원)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케이스에 담겨 있는 예쁜 책을 가까운 이웃에게 선물합니다!!

우리출판사 Tel. 313-5047 Fax. 393-9696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8